



광주시청 육상, 전국 최강 질주

광주시청 육상팀이 종별선수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 '전국 최강'의 실력을 뽐냈다. 금메달 7개는 1994년 창단 이래 종별선수권 최고 성적이며, 2012년 전국체전(금 7·은 2·동 1) 타이 기록이다. 광주시청은 실업선수권에 이어 올 시즌 전국대회 2연속 전국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국 육상 단거리 간판' 김국영이 금빛 질주를 이끌었다.

김국영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와 200m를 석권했다.

김국영은 남자일반부 100m 예선에서 10초38로 대회 타이틀 기록한데 이어 결승에서 속도를 높여 10초35의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정상에 섰다. 김국영은 목표했던 한국기록(10초23)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서도 10초35로 결승선을 통과해 대회 기록을 바꿔냈다.

김국영은 200m에서도 20초8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예선에서 20초89로 종전 개인 기록(21초06)을 넘어선 그는 결승에서 가속도를 높여 다시 한 번 개인기록을 깨트렸다.

김국영은 "6월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다이아몬드 리그와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해 100m 한국 기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육상의 대들보' 김덕현도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덕현은 멀리뛰기에서 7m73의 금빛 도약을 선보인데 이어 세단뛰기에서도 16m30으로 정상에 올랐다. 대회 2연패와 함께 2관왕 달성이었다.

'한국 육상의 만형' 박태경은 노장투혼을 발휘했다. 36세인 박태경은 남자일반부 110m허들에서 14초26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태경은 16년간 선수로 활동하며 금메달 200개를 수확했으며, 이중 전국체전에서 27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육상의 기대주' 이준은 단거리 중 가장 긴 400m에 출전해 47초93로 가장 먼저 끝냈다.

'여자 세단뛰기 지존' 배찬미는 여자일반부 세단뛰기에서 13m38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안았다.

배찬미는 앞서 멀리뛰기에서도 6m19를 뛰어 진

종별선수권대회 금 7·은 1 수확...올 시즌 2연속 '최고'

김국영 100m 대회新·200m 金...김덕현 멀리·세단뛰기 정상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 실업선수권에 이어 올 시즌 2연속 전국 정상을 과시했다. 심재용(왼쪽 여섯번째) 감독과 선수들이 전국 최강 질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도 출신의 정순욱(인천시청)과 같은 기록을 냈지만 시기 차에서 뒤져 정순욱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특히 최상의 컨디션인 김국영과 배찬미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에 출전, 메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제19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5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 전국 84개 실업팀 중 가장 좋은 성

적을 거뒀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올해 100m 한국 기록을 보유한 김국영이 합류하면서 광주시청 육상팀은 전국 최강이 됐다"면서 "맞춤형 지도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7월 광주U대회와 10월 강릉 전국체전에서도 정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마의 신' 양학선 U대회 출전

광주 출신의 '도마의 신' 양학선(23·수원시청)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양학선은 지난 9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광주U대회 기체체조 테스트 이벤트로 진행된 '제70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2위를 차지, 광주U대회 티켓을 거머쥐었다.

1위는 경남체육회의 유원철이 차지했다. 단체전 경기는 전북이 1위, 수원시청이 2위, 국군체육부대가 3위를 차지했다.

광주U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 남녀 70개팀 300명이 참가했다. 테스트 이벤트는 단체와 개인종합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자는 마루·안마·

종별선수권 개인종합 2위

링·도마·평행봉·철봉 경기를, 여자는 도마·이단·평행봉·평군대·마루 경기를 치른다.

한편, 광주U대회 기체체조 종목은 양학선 등 전 세계 45개국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가 열리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의 연기도 펼쳐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원의 벽'은 높았다

광주 FC 0-2 패...슈틸리케 감독 전반전 관전

"일찍 가셨어요? 다행이네요"라며 멍하게 웃던 광주 FC 남기일 감독이었다.

잘 싸운 광주였지만 수원의 벽은 높았다. 광주 FC가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0-2 패배를 당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자리를 했었다. 조용히 경기를 찾았던 슈틸리케 감독은 비행기 시간 탓에 후반전에 먼저 자리를 뒀다. 전반전 수원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펼쳤지만 후반 고비를 넘지 못했던 광주는 그나마 슈틸리케 감독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전반전은 광주가 주도했다. 수원은 정대세를 최전방으로 해 엄기훈, 백지훈, 홍철, 오병석과 골키퍼 정성룡 등 국가대표 출신의 쟁쟁한 선수들을 포진시켰다. 광주는 스타군단 앞에서도 거침없는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점수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파비오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는 패스로 조용태에게 골키퍼와의 일대일 상황을 만들어줬다. 슈팅이 정성룡에게 막히기는 했지만 광주의 심상치 않은 출발이었다. 이후에도 광주의 공격은 이어졌고 수원은 후반 24분에야 권창훈이 처음 슈팅을 날릴 정도로 발이 묶였다.

하지만 전반 분위기를 득점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광주가 후반 뼈아픈 실수로 수세에 몰렸다.

후반 시작과 함께 수원이 공세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그리고 후반 16분 광주의 아쉬운 실수가 나왔다. 수원 엄기훈이 왼쪽 측면에서 열린 크로스를 골키퍼 제중현이 편향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공이 수비수 안영규의 몸에 맞은 뒤 광주 골문 쪽으로 향했다. 수원 공격수 레오가 그대로 달려들어서 골망을 흔들었다.

그리고 7분 뒤 남기일 감독이 교체 타이밍을 놓치면서 땅을 쳤다. 수비수 오도현의 투입을 준비하던 광주는 코너리 상황을 막지 못하며 추가골을 내줬다. 엄기훈의 땅볼 크로스가 뒤쪽으로 흘렀고 대기하고 있던 수비수 조성진이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며 골대를 뚫었다. 이후 추가골 없이 경기는 0-2, 광주의 패배로 끝났다.

광주 남기일 감독은 "타이밍이 아쉽다. 오도현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추가골이 나왔다. 수원의 레오가 들어왔을 때 수비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다. 그 고비만 넘기고 투입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점을 하고 말았다. 내 실수다. 선제골을 내준 실수 상황도 아쉽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잘 싸웠지만 후반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광주의 무득점 패배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평골프고 출신 전인지 日 메이저 대회 우승

함평 골프고 출신의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일본 여자 프로 골프(J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나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롯파스컵(총상금 1억2000만원) 정상을 밟았다.

전인지는 10일 일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 골프클럽 동코스(파72·65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의 성적을 낸 전인지는 우에다 모모코(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인지는 처음 출전한 JLPGA 투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상금으로 2400만원(약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JLPGA 투어 10번째 대회로 앞서 3월 요코하마 레이디스 스퀴프 이치호(36), 지난주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토너먼트 신지애(27·스리본드)가 우승을 한데 이어 전인지가 3승째를 기록하며 태극남자들의 힘을 발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U대회 기대하세요"

9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양학선이 도마 경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